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윤미진\*,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Mi-Jin Yun\*, Young Chae Kwo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일 부터 5월 20일 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학년, 셀프리더십은 나이,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간의 상관성은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r=.376, p=0.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을 1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conducted among 320 nursing students on May 2018 at one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communication skills in the grade, self leadership in age and grade. However, Self-efficacy,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showed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 $r = .376, p = .000$ ) and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14.1% exhibited by nursing students.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ultidimensional strategies to improve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lso, it is recommended that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programs to understand the college life adaptation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생각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Corresponding Author : Mi-Jin Yun(angelymj@hanmail.net)

Received October 1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7,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이다. 그러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과도한 학업적 부담감과 동료와의 대인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과 함께 임상실습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일찍 경험하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 또한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과 함께 이론적 간호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 역할의 모호성, 과중한 업무, 무력감, 능력부족, 불확실성,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마음 상하는 것, 예상치 못한 상황의 통제력 부족, 지도교수와 동료들과의 관계형성에서 당면하는 괴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2].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좌절과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3]. 이처럼 간호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간호 지식과 기술로 인해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간호대상자들은 간호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해 간호학생들이 자신에게 간호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4],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전략의 하나로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조직구성원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자기관리(self-management)의 확대로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로서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인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5]. 또한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잠재력의 차이가 있고, 학습이나 교육에 따라서 발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것으로써 선천적으로 셀프리더십을 타고 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학과 만족도를 높이는 물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등 개인적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어 취업진

략과 학업에 흥미를 더하여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6].

더불어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학습상황에서의 동기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7], 특정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정한 과제 수행이나 학업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며 그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며[8], 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며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미래 학업과정과 성취도를 예측 가능하다[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전공 학업증진 행동의 근원이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임상실습 상황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 다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호 대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상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지식이다[10].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인 동시에 간호교육의 핵심이다. 간호대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따라 2, 3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이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Idczak[11]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Shin & Lee[12]는 자신감 부족 및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와 조력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간호학과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3].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역할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계연구[14],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7],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관계[15],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16] 등이 있으나, 의사소통을 잘하는 간호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신의 감정도 잘 조절하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므로[11]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 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간호학과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312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등이 개발한 자아효능감 측정도구(General self efficacy)를 사용한 이진희(1998)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정애순[17]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 중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2.3.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의사소통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을 이현숙[18]이 1명의 간호학 전공교수, 2명의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관리자에게 자문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총 15문항 중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5로 나타났다.

#### 2.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983)가 개발한 설문지를 김한성(2003)이 수정·보완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2003)[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7이었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89.7%, ‘남학생’이 9.9%, 연령은 ‘19세~20세’가 41.9%, ‘21세~22세’가 7.1%, ‘23세~24세’가 50.6%를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49.4%, 4학년이 51.6%, ‘종교유무’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47.1%, 없는 학생이 52.9%를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51.1%,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49.1%,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취업이 32.1%, 직업의 가치 때문이 24%, 적성에 맞을거 같아서가 18.9%,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 5.1%, 성적에 맞추어서가 1.9%, 부모님 등 주위의 권유가 17.9%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2)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명(%)
Gender	Male	31(9.9)
	Female	280(89.7)
Age	19-20	132(41.9)
	21-22	22(7.1)
	23-24	158(50.6)
Grade	2nd	151(48.4)
	4rd	161(51.6)
Religion	Yes	147(47.1)
	No	165(52.9)
Club activities	Yes	161(51.6)
	No	150(48.1)
Reason application in nursing for	Find employment	101(32.1)
	Vlaue	75(24)
	Aptitude	59(18.9)
	Job security	16(5.1)
	School record	6(1.9)
	Inducemnr	56(17.9)

#### 3.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86±.4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7±.54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7±.54점 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기대 4.10±.68, 리허설 3.93±.75, 자기보상 3.82±.71, 목표설정 3.80±.70, 자기비판 3.49±.89, 건설적 사고 3.44±.73점 순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N=312)

Variables	M±SD	
Self-efficacy	2.86±.45	
Communication ability	3.57±.54	
Self-compensation	3.82±.71	
	Rehearsal	3.93±.75
	Goal-expection	3.80±.70
Self-leadership	Self-expection	4.10±.68
	Self-criticism	3.49±.89
	Constructive thinking	3.44±.73
Total	3.87±.54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성별, 나이, 학년, 종교, 동아리 활동 유무, 간호학을 지원한 동기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F=-3.341,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학년이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 성별, 나이, 종교, 동아리 활동, 간호학을 지원한 동기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나이( $F=3.630, p=.028$ ), 학년( $F=-3.851, p=.00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리고 성별, 종교, 동아리 활동, 간호학을 지원한 동기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23세~24세의 연령이 높았고, 학년은 4학년이 셀프 리더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in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Characteristic	Categories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M±SD	t/F	p(Ducan)	M±SD	t/F	p(Ducan)	M±SD	t/F	p(Ducan)
Gender	Male	2.84±0.45	-217	.283	3.61±0.56	.475	.630	3.97±0.61	1.075	.283
	Female	2.86±0.45			3.56±0.54			3.68±0.54		
Age	19-20	2.88±0.44	.573	.564	3.64±0.51	2.125	.121	3.79±0.59 <sup>a</sup>	3.630	.028 (a,b<c)
	21-22	2.77±0.42			3.59±0.50			3.86±0.64 <sup>b</sup>		
	23-24	2.85±0.45			3.51±0.56			3.97±0.46 <sup>c</sup>		
Grade	2nd	2.85±0.44	-308	.758	3.46±0.55	-3.341	.001	3.75±0.58	-3.851	.000
	4rd	2.86±0.45			3.66±0.51			3.98±.48		
Religion	Yes	2.86±0.47	.051	.959	3.56±0.55	-.83	.934	3.84±0.55	-.769	.442
	No	2.85±0.43			3.59±0.53			3.89±0.54		
Club activities	Yes	2.84±0.46	-819	.414	3.60±0.49	1.123	.262	3.85±0.54	.690	.491
	No	2.88±0.43			3.53±0.59			3.90±0.55		
Reason for application in nursing	Find employment	2.88±0.46	.392	.893	3.57±0.52	.701	.623	3.88±0.55	.921	.467
	Vlaue	2.88±0.46			3.56±0.50			3.89±0.61		
	Aptitude	2.83±0.42			3.64±0.48			3.95±0.43		
	Job security	2.75±0.45			3.63±0.62			3.69±0.60		
	School record	2.83±0.41			3.50±0.55			3.83±0.40		
	Inducemnr	2.84±0.49			3.46±0.60			3.79±0.54		

### 3.4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간의 상관성은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r=.376$ ,  $p=0.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171$ ,  $p=.00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Self-leadership,	r(p) -.171(=.002)	r(p) .376(=.000)

### 3.5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2~0.975, 0.897~0.945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VIF를 구한 결과 1.025~1.245, 1.073~1.153의 값을 취하므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방법으로 확인한 바,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을 14.1%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을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for Self-leadership

Variables	$\beta$	t	p	F	R <sup>2</sup>
Communication ability	.376	7.146	0.000	51.066	.141
Self-efficacy	-.173	-3.347	0.000	31.973	.171

##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 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연희[15]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2점 보다 낮고, 정수경[20]

의 3.23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2학년, 4학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학년이 시작되면서 1학년의 교양위주 교과목만을 학습하다가 전공교과목 특히, 기본간호학 및 실습을 이수하면서 프로토콜을 익히고 개별적 차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두려움, 생소함 등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4학년의 경우는 계속되는 여러 교과목의 임상실습과 임상실습과 이론교과목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57점으로 나타났다. 조인영[21]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70점 보다 낮고, 김은주[22]의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84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조인영[2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학년이 단계별로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의 2, 4학년 중심의 연구와 단적인 비교가 어렵고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이수 등의 비교도 어려워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후 학년별, 임상실습 진후 등의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김은주[22]의 방문간호사 대상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만족시키고 질병회복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고 다차원적인 실무와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의사소통능력이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학년보다 4학년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을 통한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으로 연마한 결과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의 평균평점은 3.8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연희[15], 정수경[20], 강혜승[16]의 연구보다 높은 점수이며, 조미혜[23]의 3.74점과 유사한 점수이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이 높은 순인 반면 건설적 사고는 낮은 순으로 나타나 양남영[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고 목표를 설정한 후 효과적인 행동설정을 위해 연습을 통해 과업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이 아닌 하나의 기회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 패턴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내부로부터 목표와 계획을 주는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

십은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유지 될 수 있는 개념이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 사고력을 키워 건설적 사고 영역의 부족함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이 대상자의 나이,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23~24세의 연령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유지되는 개념으로[5]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r=.376,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김은주[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상대방에게 신뢰와 성실로 의사소통 하는 대상자는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질인 셀프리더십을 갖추게 된다고 사료된다.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171, p=.00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선영[7], 강혜승[16]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간호학과 2학년과 4학년으로 각각 교내실습 시작 시점의 교육과정의 어려움과 통합적인 비판적 사고과정이 필요로 한 임상실습현장의 적응과 이론과 임상실습의 병행에 따른 부담으로 셀프리더십은 높거나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나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아 도출된 결과라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14.1%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스스로 자신을 리더하는 자기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2.86점,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57점, 셀프리더십 점수는 3.87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부영역별 점수는 자기기대 4.10점, 리허설 3.93점, 자기보상 3.82점, 목표설정 3.80점, 자기비판 3.49점, 건설적 사고 3.44점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셀프리더십은 나이,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은( $r=.376$ )정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171$ )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14.1% 설명력을,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을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이 서로 관계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학생들이 의사

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교를 편의표집을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2] E. J. Jo, J. M. Kang & K. M. Lim. (2017).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 10.5762/KAIS.2017.18.3.94
- [3] J. S. Lee. (2016).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53-260.  
DOI : 10.5762/KAIS.2016.17.10.253
- [4] K. S. Kang. (1996). Effectiveness of Video-Record Method on Fundamental Nursing Skill Education-Focused on Enema,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 of Nursing*, 3(2), 273-283.
- [5] C. C. Manz & H. P. Sims.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6]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229-240.  
DOI : 10.53392/JKCA.2014.14.06.229
- [7] S. Y. Lee & Y. Y. Kim. (2016).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09-318.  
DOI : 10.14400/JDC.2016.14.3.309
- [8]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9] J. Hyun, J. E. Cha & T. E. Kim. (2006). Prediction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by a School Grad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2), 443-465.
- [10] B. Spitzberg & W. Cupach.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ability Research*, Springer-Verlag.
- [11] S. E. Idczak. (2007). I am a nurse: Nursing syudents learn the art and science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8(2), 66-71.
- [12] K. A. Shin & E. S. Lee. (2011).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49-270.
- [13] E. J. Bong. (201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al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y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94-402.  
DOI : 10.53392/JKCA.2013.13.10.394
- [14]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6-225.

- [15] Y. H. Choi & C. S. Jung. (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04-4613.  
DOI : 10.5762/KAIS.2015.16.7.4604
- [16]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 10.5762/KAIS.2017.18.5.617
- [17] A. S. J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18] H. S. Lee. (2010).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Types,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Seoul.
- [19]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ducatio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20] S. K. Chung. (2014). Effect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7160-7169.
- [21] I. Y. Cho. (2015).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93-2601.  
DOI : 10.5762/KAIS.2015.16.4.2593
- [22] E. J. Kim, J. Y. Lim & K. W. Choi. (2011). Relations among the Decision Making Style,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ppelence of Visiting Nurse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1(10), 324-332.
- [23] M. H. Cho & J. Y. Lee. (2012).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13(3), 241-253.

윤 미 진(Yun, Mi Jin)

[정회원]



- 2010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과 박사)
- 2015년 ~ 현재 : 가야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생명윤리, 리더십, 간호교육, 지역사회

· E-Mail : angelymj@hanmail.net

권 영 채(Kwon, Young Chae)

[중신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

· E-Mail: nahante55@hanmail.net